

嘈雜에 대한 형상의학적 고찰

강경화 · 박광길¹ · 이용태*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생리학교실 · 한방바이오연구센터 1:태강한의원

Review on Gastroenteric Troubles According to Neurosis or Uncomfortable Feeling with Hyungsang Medicine

Kyung Hwa Kang, Kwang Gil Park¹, Yong Tae Lee*

Department of Physiology · Biomedical Research Center of Oriental Medicine, Dongeui University, 1:Taegang Oriental Clinic

The writer reviewed on Chojop(嘈雜) and came to conclusions as follows. Symptoms of Chojop is appeared digestive ailment such as belching, nausea, regurgitation of acid, stomachache etc., if being serious, felt oppressed with palpating in chest and uneasiness at times. In Dangaesimbub written by Chujinhyung, the causes of Chojop were mainly regarded as phlegmatic fire(痰火) and suggested the way of treatment. The causes of Chojop are movable fire with phlegm, insufficiency of blood caused by thinking to excess, and Shinyanghohan(腎陽虛寒) that is piled cold phlegm by voidance and coldness of Renal Yang, but the main cause is brought to a conclusion as phlegmatic fire. The phlegmatic fire is come from being in discord with the spleen and the stomach, or from inharmony between vigor and blood according to essence and vital energy which are disturbed by combined feelings. That is caused by disharmony between inner and outer conditions according to individuals. The distinctive features in shapes of Chojop are revealed to shapes such as manlike woman, womanlike man, wearing darkish or reddish color between two eyebrows, being almond eyed, strong eyebrows, being sunk the upper part of the nose bridge, lots of facial blots, Dam-body, Ki type, Shin type, Birds group, and Yangmyung type. The doctors can prescribe Whadamchungwhatang to Yangmyung type, Yanghyulsamul-tang for patients with strong eyebrows so flourishing blood and vigor, Hyangsapyungwuisan for patients belong to Birds group, Soshikchungul-tang for Ki type, and Palmiwhan for man belonged to Bangkwang-body with voidance and coldness of Renal Yang chiefly.

Key words : Chojop(嘈雜), phlegmatic fire(痰火), Shinyanghohan(腎陽虛寒), Hyungsang medicine

서론

嘈雜은 배고픈 듯하지만 배가 고프지 않고, 아픈 듯하나 아프지 않으며, 가슴이 뭉스 답답하고 괴로워 안정하지 못하는 증상으로, 嘔는 食嘈로도 되고 飢嘈의 의미이며 雜은 雜亂의 의미로, 혹 트림이 나거나 명치끝이 거북하고 그득한 감이 있거나 매스꺼움 증 등이 겹해 있으면서 점차 胃脘部까지 아프게 되는데,¹⁾ 심한 환자의 경우는 嘈慢不安하고 煩亂懊惱하여 참기 어렵고, 치료가 적절하지 못하면 噎膈·反芻로 전변되어²⁾ 생명을 위태롭게도 한다. 한편 嘈雜에 대하여 『內經』에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으며,

『東醫寶鑑』에서 懊惱의 症狀과 治法이 嘈雜과 유사하다³⁾고 하였는데, 懊惱에 대하여 『內經·六元正紀大論』에서는 火鬱로 인한 懊惱로⁴⁾, 張機의 『金匱要略』에서는 酒疸의 증상으로 懊惱를⁵⁾, 『傷寒論』 이래 金代의 劉完素, 成無己 등은 傷寒病중에 주로 陽明病의 잘못 치료에 의한 津液이 損傷되어 心胸에 발생하는 虛煩·煩躁·懊惱症으로 언급하였다.⁶⁾

元代의 朱震亨에 이르러 嘈雜 또는 心嘈라 처음 命名하여 주로 痰因火動에 의해 발병하는 內傷疾患으로 懊惱와 嘈雜을 구

* 교신저자 : 이용태, 부산시 부산진구 진리1로 100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 E-mail : yilee@deu.ac.kr, · Tel : 051-850-8635

· 접수 : 2004/06/09 · 수정 : 2004/07/19 · 채택 : 2004/08/04

1) 許浚 : 對譯東醫寶鑑, p. 1152

2) 上揭書, p. 1149

3) 上揭書, p. 1154

4) 裘秉哲 : 今釋黃帝內經素問, p. 739 火鬱之發, ...腹中暴痛, 血益流注, 精液乃少, 目赤心熱, 甚則昏悶懊惱, 善暴死.

5) 張機 : 金匱要略辨釋, p. 415 心中懊惱而熱, 不能食, 時欲吐, 名曰酒疸.

6) 張機 : 傷寒論譯註 231條, p. 168

분하였다.7) 이후 明代의 虞搏, 李梴, 龔信, 張介賓 및 朝鮮後期の 周命新에 이르기까지 嘈雜의 原因과 治法을 더욱 세분화하고 발전시켰다.8)9)10)11)12)

嘈雜의 原因을 朱震亨은 痰因火動·食鬱有熱·濕痰氣鬱로, 虞搏은 痰火로, 李梴은 食鬱과 憂鬱로 인한 痰火·思慮傷心으로 인한 血分稍虧로, 龔信은 胃中痰因火動·心血少·食鬱로, 張介賓은 火·痰·脾胃虛寒·脾腎陰分虛寒으로, 周命新은 痰火·思慮傷心血·寒痰停蓄·虫 등으로 보았으나, 이를 요약하면 嘈雜의 主原因은 痰火로 귀결된다. 따라서 嘈雜의 증상은 단순한 胃腸疾患이 아니라 그 原因과 증상이 감정변화와 많은 연관을 두고 있고, 主原因이 痰火임으로, 그 증상은 上中焦 부위와 皮膚에 까지 광범위하게 발현되고 있다.

形象醫學을 主唱한 朴仁圭는 似飢不飢 似痛不痛하고 時作時止하는 嘈雜症의 특징을 현대의 신경성 위염에 비유하였는데,13) 이는 脾胃가 不和하여 나타나는 것이라 하고, 痰火의 의미는 “가슴이 답답한 것”이고, 가슴이 답답한 것은 氣血이 균형을 잡지 못한 것으로 精氣가 交合되지 않는 상태라고 하였다.14) 嘈雜이 주로 나타나는 形象의 特徵을 살펴보면 男子같은 女子, 女子같은 男子, 印堂이 어둡거나 붉으며 주름이나 흠집이 있는 경우, 눈 꼬리가 올라간 경우, 눈썹이 짙은 경우, 山根이 함몰된 경우, 얼굴에 잡티가 많은 경우, 膽體, 神科, 氣科, 鳥類, 陽明形 등에 잘 나타난다.

이에 著者는 嘈雜에 대하여 歷代 醫家들의 견해를 文獻의 考察하고 《東醫寶鑑》을 중심으로 嘈雜과 관련된 症狀를 살펴봄과 아울러 形象醫學의 관점에서 嘈雜이 頻發하는 類形을 제시하여 그 類形에 따라 形色脈症의 合一을 통한 診斷 및 治法으로 얻은 臨床例를 보고하는 바이다.

본론 및 고찰

1. 嘈雜의 概要

嘈雜의 문자적 의미는 소리가 雜亂한 것을 가리키는데, 懊惱와 그 症狀이 유사하고 治法이 같으므로 『東醫寶鑑』에서는 懊惱에 대하여 “懊字는 근심하고 괴로워한다는 뜻이고, 惱字는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다는 뜻이다. 즉 가슴속이 안타깝게 괴롭고 답답하고 멍쳐있는 것 같으면서 개운치 않아 어쩔 바를 몰라하는 것인데, 煩悶보다 甚한 것이다”라고 정의하고, “懊惱症이란 답답하여 잠을 자지 못하고, 배가 고프나 음식을 먹지 못하는 症이다. 치료는 嘈雜症과 같다”라고 하였다.15)

한편 『內經·六元正紀大論』에서는 火鬱로 인해 精血을 손상하여 懊惱가 일어나고 갑자기 잘 죽는다16)고 하였으며, 漢代의 張機의 『金匱要略』에서는 酒疸의 증상에 心中이 懊惱하고 음

식을 먹지 못하고 잘 吐하고, 혹 熱痛이 있다17)고 한다. 『傷寒論』에서는 太陽病에 表邪가 풀리지 아니한 데, 瀉下시켜서 胃中이 空虛해지고 客氣가 胸膈을 滯留시켜 心中에 懊惱가 발하는 結胸症의 증상으로,18) 三陽合病 中에 陽明病이 主證이 된 것을 잘못 攻下시켜 心中에 懊惱가 發하거나,19) 陽明病에 胃中에 燥屎가 아직 풀리지 않아서 懊惱가 發하고,20) 陽明病에 內熱이 밖으로 排泄되지 못하고 小便이 不利하니 心中이 懊惱한 者는 반드시 黃疸이 發한다21)고 하였다. 金代의 劉完素는 『傷寒三六書』에서 懊惱란 가슴에 熱이 몰려 마음이 편치 않고 괴로운 것으로, 반복해서 넘어지고 잠을 들지 못하는 者는 熱이 속에서 佛鬱하여 氣가 宣通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였고,22) 陽明病에 잘못 泄瀉시켜 발하는 懊惱와 少陽病의 懊惱症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또 成無己의 『傷寒明理論』에서는 “懊者 懊惱之懊, 惱者 鬱悶之貌”로 懊惱의 증상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며,23) 그 증상의 발현은 『傷寒論』 陽明病의 경우로 설명하고 있다.24) 元代의 朱震亨의 『丹溪心法』에 이르러 懊惱와 구분하여 嘈雜이라命名하고 “嘈雜症은 火로 인하여 痰이 발동되어 생기는 것인데, 명치가 쓰리고 배고픈 듯하나 배고프지 않으며, 積이 있기도 하고 熱이 있기도 한다”라고 하고, 그 原因을 痰因火動·食鬱有熱·濕痰氣鬱로 나누었는데, 주로 痰因火動으로 인하여 嘈雜이 發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治療에 있어서는 治痰을 우선으로 하고 心肺의 熱을 瀉하는 梔子(炒)·黃蓮(薑炒)를 반드시 써야 한다고 嘈雜의 治療 方向을 제시하였다.25) 이후 明代의 虞搏의 『醫學正傳』에서는 “夫嘈雜之爲證也 似饑不饑 似痛不痛 而有懊惱不自寧之狀者是也”라 하여 懊惱의 증상을 嘈雜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또한 噯氣·吞酸·痞滿의 증상을 겸하는 嘈雜症이 甚해지면 翻胃·膈脹로 轉變된다고 하고, 그 原因을 痰火로 보고 化痰清化湯을 만들어 그 치료법을 “天南星·半夏·橘紅 등으로 痰을 삭히고, 黃芩·黃蓮·梔子·石苻·知母 등으로 火를 내리며, 蒼朮·白朮·白芍藥 등으로 脾를 든든하게 하고 濕을 없애며 元氣를 든든하게 하면 낫는다.”라고 자세히 소개하였다.26)

李梴의 『醫學入門』에서도 嘈雜을 “心嘈似饑 又煩雜”이라 하고 逆·翻胃로 轉變된다고 하였고, 그 原因을 食鬱과 憂鬱로 인한 痰火로 보았으며, 처음으로 思慮過多로 血分이 虛해져 나타나는 五更嘈 대하여 언급하고 그 처방을 소개하였다.27) 또

17) 張機：金匱要略辨雜，p. 430 酒黃疸，心中懊惱或熱痛。
 18) 張機：傷寒論譯論 141條，p. 106 太陽病 脈浮而動數 浮則爲風 數則爲熱 動則爲痛 數則爲虛 頭痛發熱 微盜汗出 而反惡寒者 表微解也 醫反下之 動數變遲 膈內拒痛 胃中空虛 客氣動膈 短氣煩躁 心中懊惱 陽氣內陷 心下因革更 則爲結胸 …
 19) 上揭書 231條，p. 168 陽明病 脈浮而緊 咽燥 口苦 腹滿而喘 發熱 汗出不惡寒 反惡熱 身重若發汗則躁 心愠 憤及譫語 若加燒針 必怵惕 煩躁不得眠 若下之 則胃中空虛 客氣動膈 心中懊惱 舌上胎者 梔子豉湯 主之。
 20) 上揭書 247條，p. 178 陽明病 下之 心中懊惱而煩 胃中有燥屎者 可攻 腹微滿 初頭革更 後必瀉 不可攻之 若有燥 屎者 宜大承氣湯。
 21) 上揭書 208條，p. 152 陽明病 無汗 小便不利 心中懊惱者 身必發黃。
 22) 劉完素：傷寒三六書，pp. 344 345 懊惱者煩心熱燥，悶亂不寧也。懊惱煩心，反復煩 倒不得眠者，燥熱佛鬱於內，而氣不能善通也。
 23) 成無己：傷寒明理論講解，p. 165
 24) 上揭書，p. 167
 25) 朱震亨：丹溪心法附錄，p. 343
 26) 虞搏：醫學正傳，pp. 136-137
 27) 李梴：編註醫學入門，pp. 254-255

7) 朱震亨：丹溪心法附錄，p. 343
 8) 虞搏：醫學正傳，pp. 136-137
 9) 李梴：編註醫學入門，pp. 254-255
 10) 龔信：萬病回春，pp. 161-162
 11) 張介賓：景岳全書，pp. 458-459
 12) 周命新：醫門寶鑑，pp. 134-136
 13) 芝山先生臨床學特講 VI，p. 368
 14) 上揭書，pp. 204-206
 15) 許浚：對譯東醫寶鑑，p. 1154
 16) 裴乘哲：今釋黃帝內經素問，p. 739

眞信의 『萬病回春』에서는 嘈雜의 원인을 胃中の 痰因火動, 心血少, 食鬱로 나누고 그 중에서 胃中の 痰因火動으로 인한 것이 많다고 하고 그 原因에 따른 각각의 處方을 정리하였다.²⁸⁾ 한편 張介賓은 『景岳全書』에서 嘈雜의 원인을 痰火 뿐만 아니라 脾胃가 虛寒해서도 발병한다고 하며 嘈雜의 원인을 火로만 보고 寒冷한 藥만 쓰는 것을 비판하였다. 또한 脾胃陰分이 虛寒하여 嘈雜이 온다고도 하였다.²⁹⁾

朝鮮後期の 周命新의 『醫門寶鑑』³⁰⁾에서는 “嘈雜者 胸膈 懊惱不寧 莫何以名狀者也”라고 하고 脾胃不和로 인해鬱하면 痰火가 動하여 嘈雜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말하고 그 원인을 火動 痰盛·食鬱·痰鬱로 인한 痰火, 思慮하여 傷心血, 脾胃虛寒 하거나 腎經虛寒으로 인한 寒痰停蓄 및 새롭게 虫³¹⁾을 原因 중에 하나로 보고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2. 嘈雜의 原因

歷代 醫家들이 제시한 嘈雜의 原因에 대한 견해를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痰因火動

精氣神血이 不和하여 정상적으로 運行되지 않거나, 脾胃의 運化에 장애가 생기면 津液이 津液化되지 못하여 痰을 형성하게 된다. 痰은 인체에 病理的으로 나타날 때 火와 많은 연관을 가지는데, 津液이 熱이 받으면 痰을 생성하기도 하고³²⁾, 水濕이 停滯하여 痰이 생기고 鬱滯하면 火熱을 발생하기도 한다. 痰火가 交結하고 鬱滯하게 되면 痰火의 病症이 잘 발생하게 되는데³³⁾, 주로 火로 인해 痰이 동하게 된다.³⁴⁾ 痰은 곧 有形의 火이며 火는 곧 無形의 痰이다. 痰은 火를 따라 昇降을 하고 火는 痰을 이끌고 橫行한다.³⁵⁾ 따라서 치료에 있어서는 氣가 위로 올라가는 것은 火에 속하기 때문에 氣를 고르게 하는 것이 火를 내리는 것으로 된다. 즉 痰은 氣를 따라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먼저 氣를 고르게 하고 다음에 痰을 해치고 삭게 해야 한다.³⁶⁾

한편 體質이 본래 胃에 熱이 많으면 胃의 腐熟機能이 充進되어 消穀善饑하는 유형의 嘈雜症을 유발하는데³⁷⁾ 胃熱을 瀉하는 치료법을 써야 된다. 또한 성질이 급하여 화내기를 잘 하면 陰火가 타올라서 가슴과 胃中에 鬱火가 생기고 痰을 형성하게 된다.³⁸⁾ 따라서 치료는 火를 내리고 解鬱化痰 시켜야 한다.

2) 食鬱

胃는 시장과 같은 곳으로 飲食物을 受納腐熟하고³⁹⁾ 脾는 형태가 말밭같고 胃를 둘러싸고 氣血을 運化輸布하는데⁴⁰⁾, 脾胃가 虛寒하여 中氣가 不足하면 升清·降濁의 운동이 失調되어 음식물이 소화되지 않아 신물이 올라오거나 惡心を 겸하고 戚戚膨膨한 痞滿症이나 食少無味한 증상이 나타나는 嘈雜症을 유발하니 치료는 溫胃健脾시켜야 한다.⁴¹⁾

한편 體質이 본래 脾胃가 虛弱하지 않아도 不規則한 食事나 부적절한 飲酒 및 膏粱厚味한 음식을 過食하면 胃氣를 손상시켜 脾胃의 運化에 장애가 생겨 食積이 되고 점차 濕이 뭉쳐서 오래 되면 熱을 발생하여 결국 濕熱이 생성하게 된다. 이러한 濕熱은 胃의 어귀에 있다가 음식을 먹으면 그 濕熱이 胃에 머물러서 자극하여 消化를 장애하기 때문에 吞酸이나 嘈雜症을 유발하게 된다. 또한 飲食이 陽氣를 돌우는 데만 치우치면 쌓여서 가슴에 熱이 생긴다. 따라서 食鬱로 熱이 생긴 嘈雜症에는 기름진 음식을 피하고 채소를 먹어 氣가 순조롭게 잘 통하게 해야한다.⁴²⁾

3) 思慮傷心으로 인한 血虛

心은 神明이 들어 있는 곳인데 心이 편안치 못하면 變하여 火가 된다.⁴³⁾ 즉 心은 火가 누워있는 모습인데 心이 일어나면 火가 動하게 된다. 따라서 걱정과 근심을 하거나 지나치게 생각을 하면 心이 傷하여 心血이 부족하게 되며, 잘 잊어버리고 기억해 두지 못하며, 놀리면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하며, 가슴속이 몹시 답답하고 참을 수 없이 괴로우며, 새벽에(五更) 숙이 쓰린 증상이 나타난다.⁴⁴⁾ 음식물이 胃에 들어가면 營血이 보충되고 衛氣는 따뜻하게 되어 脈이 돌게 된다. 즉 胃는 脈을 통해야 되고 脈은 血을 통해야 榮衛循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 榮衛가 運行이 안 되는 것은 脈이 안 좋아서 올 수 있다. 정리하면 血이 부족하면 脈이 나쁘게 되고 榮衛의 運行이 안되어서 胃가 나빠지게 되어 嘈雜症을 유발하게 된다.⁴⁵⁾

한편 情志의 變化는 人體의 陰陽·氣血에 영향을 미치는데, 情志가 抑鬱不暢되면 肝의 疏泄 機能이 원활치 못하여 肝鬱化火의 病症이 나타나고 결국 肝의 血이 虛해지게 된다.⁴⁶⁾

4) 腎陽虛寒으로 인한 寒痰停蓄

“腎經虛寒者 多因水泛爲飲”⁴⁷⁾이라 하였는데, 腎은 水液의 蒸化를 주관하는데 만약 腎陽이 不足하면 蒸化無力하여 水液이 氣로 化하지 못함으로써 聚하여 上泛하거나 停留하여 痰과 飲을 형성한다.⁴⁸⁾ 이는 下元이 虛冷하여 腹部的 律動運動이 이루어지지 않아 痰飲이 생성된 것이다.⁴⁹⁾ 男子의 경우에 消化가 잘 안되고 더부룩하고 입맛이 없는 경우는 下焦의 元陽이 虛하거나 疝

28) 眞信：萬病回春，pp.161-162

29) 張介賓：景岳全書，pp.458-459

30) 周命新：醫門寶鑑，pp.134-136

31) 上揭書，p.312 蟲者生物之以息相來也，其爲病人多有之蓋因臟腑氣弱生冷甘肥之不即運化而停積濕熱痰於之相與蒸蒸而凝結皆能致諸般奇怪之形以隨五行之氣而化生焉若草腸爲蠶是也，其症有內外之殊腹有塊按不見時痛時止 痛不可忍五更心嘈嘔沫吐涎，…

32) 許浚：對譯東醫寶鑑，p.1277 氣鬱而濕滯，濕滯而成熱，熱鬱而成痰… 『正傳』

33) 胡秋末：嘈雜辨治，湖南中醫雜誌，Vol.19, No.6, pp.47-48… 水濕滯留，聚濕生痰，痰滯久鬱，生熱化火，痰火交結，阻滯脾胃氣機，升降失調，而出現痰火鬱滯證候。

34) 汪湖庵：醫方集解，p.326 痰不自動，因火而動。

35) 上揭書，p.318 熱痰者，痰因火盛也，痰即有形之火，火即無形之痰，痰隨火而升降，火引痰而橫行。

36) 許浚：對譯東醫寶鑑，p.289 痰生於脾胃，治法宜實脾·燥濕，又隨氣而升，宜順氣爲先·分導次之。又氣升鬱火，順氣在於降火。 『醫鑑』

37) 文滄典，安圭錫，崔昇勳：東醫病理學，p.210

38) 許浚：對譯東醫寶鑑，p.1149

39) 上揭書，p.338

40) 上揭書，p.316

41) 張介賓：景岳全書，p458 脾胃虛寒嘈雜者，必多吞酸，或兼惡心，此皆脾虛不能運化，滯濁而然，勿得認爲火證，妄用寒涼等藥，酸水浸心而嘈者，戚戚膨膨，食少無味，此以脾胃虛寒，水穀不化也，宜溫胃健脾。

42) 許浚：對譯東醫寶鑑，p.1150

43) 上揭書，p.1156

44) 許浚：對譯東醫寶鑑，p.1152 五更心嘈者，思慮傷心，血虛也。 『回春』

45) 芝山先生臨床學特講Ⅳ，pp.40-41

46) 文滄典，安圭錫，崔昇勳：東醫病理學，p.176

47) 周命新：醫門寶鑑，p135

48) 文滄典，安圭錫，崔昇勳：東醫病理學，p.72

49) 芝山先生臨床學特講Ⅱ，p.161

증일 경우에도 나타난다. 즉 消化가 잘 안되고 트림을 하며 매운 기운이 위로 치받음은 밑에서 불을 때주는 힘이 약해서 밥이 잘 익지 않으니 消化가 잘 안 된다는 뜻이다. 본래 生殖器가 人體에서는 아궁이 역할을 하는 곳이며(辜丸은 人體의 아궁이다) 胃腸은 밥통이기 때문이다. 만약 밑불이 약해서 밥통에 밥이 다 되지 못해서 내려오지 못했을 때는 나중에 胃潰瘍이 생겨 그릇까지 망가지 우려가 있다고 하겠다.⁵⁰⁾

3. 嘈雜과 관련된 症狀

현대 사회는 과도한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식사 그리고 자극성 있는 음식물의 습관적인 섭취로 만성적인 위장 질환이 흔히 유발되고 있다. 현대 의학의 신경성 위염, 위·십이지장 궤양 등은 嘈雜症과 유사하며 再發率⁵¹⁾이 높아서 치료가 적절하지 못하면 胃癌으로 전변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⁵²⁾ 嘈雜은 吞酸, 噯氣, 惡心, 胃脘痛 등의 胃腸 疾患이 나타나는데 그 원인과 증상이 感情變化와 많은 연관을 두고 있어서 배고픈 듯하지만 배고프지 않고, 아픈 듯하지만 아프지 않고, 기분에 따라 증상이 時作時止하는 특징⁵³⁾이 있다. 또한 憂愁思慮 過多로 인해 血이 虛해지면 嘈雜症이 나타나는데 心悸, 怔忡, 不眠, 煩燥, 懊惱 등을 겸한다. 한편 嘈雜의 主要原因이 痰火이므로 『東醫寶鑑』에서 痰火로 인하여 나타나는 病症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神門·癩癩, 癩狂>⁵⁴⁾, <血門·嗽血>⁵⁵⁾, <痰飲門·熱痰>⁵⁶⁾, <小便門·赤白濁>⁵⁷⁾, <頭門·肩陵骨痛, 眩暈>⁵⁸⁾, <耳門·耳鳴, 耳聾, 耳痒>⁵⁹⁾, <鼻門·鼻痛>⁶⁰⁾, <胸門·胸痛>⁶¹⁾, <腹門·臍腹痛>⁶²⁾, <風門·手足癱瘓, 破傷風>⁶³⁾, <內傷門·吞酸吐酸, 嘈雜, 噯氣>⁶⁴⁾, <嘔吐門·嘔吐>⁶⁵⁾, <咳嗽門·火嗽, 喘急>⁶⁶⁾, <邪祟門·邪祟形症>⁶⁷⁾, <癰疽門·流注骨疽>⁶⁸⁾ 등에 나타난다. 이외에

痰火로 인해 肌肉에 熱이 생기면 皮膚로 전이되어 皮膚 疾患을 야기하기도 한다.

이상을 총괄하면 痰火와 관련된 질환은 주로 인체의 上中焦 부위에 많이 나타나며, 嘈雜은 胃腸疾患 뿐만 아니라 上記의 病症을 동반하여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4. 形象醫學에서의 嘈雜의 治療

1) 內傷

內傷이란 內的與件의 不調和와 外的與件의 過不及으로 氣의 升降出入에 이상을 초래하면 인체내부에서 조절 능력을 상실하여 생긴 병으로, 그 과정은 우선 精氣가 交合되지 않아 精氣神血의 손상을 가져오면 五臟의 질서가 깨어지고 이는 陰陽氣血의 榮衛가 문란해져 내부에 病理的 六氣가 조성되어 病으로 발현된다. 그리고 內傷은 五臟 중 運轉의 축인 中央土에 해당하는 脾胃와 많은 연관을 가지며 脾胃의 升清·降濁 작용을 통한 營血과 衛氣의 運轉은 인체 생명활동을 유지하게 하는 근본이 된다. 따라서 脾胃 질환은 飲食·居處·喜怒·陰陽에 해당하는 內的條件의 不調和 뿐 만 아니라 六氣의 상태에 해당하는 外的條件과 타고난 體質 즉 形象의 條件에 따라 發病하는데, 이에 대한 기전을 『東醫寶鑑·內傷變爲諸病』에서 “음식을 주의하지 않거나 겉으로 六氣에 상하거나 속으로 七情에 상하거나 음식이 지나쳐서 陽氣에만 치우치게 한 데로부터 그것이 쌓여서 가슴에 熱이 생긴다. 혹은 체질이 본래 싹하고 피부가 치밀하여 땀이 나지 않거나 성질이 급하여 성내기를 잘하여 陰火가 타올라서 津液이 제대로 돌지 못하면 맑은 기와 탁한 기가 섞이어서 병이 된다. 혹은 吞酸과 嘈雜症이 있거나 배가 脹滿한 것 등의 병으로 전변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유능한 의사를 만나지 못하여 藥을 잘못 쓰면 痰이 汚血을 껴서 오래되면 病의 窠囊을 이루어서 痞도 되고, 痛도 되고, 嘔도 되고, 吐도 되어 噎膈과 反胃 등의 병이 순차적으로 생긴다고 하였다.⁶⁹⁾ 요약하면 內傷은 각 個體의 形象의 特性의 전제하에, 內的與件인 攝生의 不調和와 外的與件인 風·雨·寒·暑의 過不及으로 인해 인체의 榮衛 循環의 중심축인 脾胃 運轉의 失調로 발생하므로, 치료에 있어서도 症狀, 脈과 아울러 개체의 形象의 특성도 반드시 감안해야 한다.

2) 痰火에 대한 이해

앞서 嘈雜의 原因 중 痰因火動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나, 形象醫學을 주창하신 朴은 痰火에 대하여 폭넓게 설명하고 있다. 朴은 “痰火란 답답한 것이다. 가슴이 답답한 것은 氣血이 균형을 잡지 못한 것이다.”⁷⁰⁾ 라고 하였다. 답답하다는 것은 鬱했다는 것으로 鬱이란 氣가 영기거나 몰린 것이 헤쳐지지 않은 상태로 氣의 升降 出入이 원활하지 못할 때 발생하며, 또한 가슴은 氣之府로 精血이 들어와야 움직이는데 精血이 不足하면 氣가 動하지 못하여 氣血의 불균형이 초래된다. 氣血이 불균형한 상태는 氣가 鬱한 병변뿐만 아니라 精血이 虛한 상태도 포함된다. 이는 內的

50) 上揭書, p. 147

51) 김영호 : 위장병 다스리기, p. 205 통계에 따르면 위궤양의 30~40%가 재발하고, 장기간에 걸쳐 관찰한 바로는 60% 이상이 재발을 했다. 또한 이들 질환의 재발은 병변이 치유되고 난 뒤 6개월 중단하면 곧장 재발하는, 비교적 빠른 시기에 재발을 되풀이하곤 했다.

52) 上揭書, p. 209 하우저(Hauzer)라는 의학자가 위궤양 주변에만 위암이 있음을 발견, ‘궤양암’이라 이름을 붙인 적이 있었다. 이는 위궤양을 발생시킨 곳에서 암종이 생긴다는 발상인데, ...궤양과 암이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것은 어느 학설에서나 인정하고 있는 바이다. 발생 기전이나 그 모체가 다르다 할지라도 실제로 위궤양의 경과 중에 암이 발견되고, 궤양 주변에서 암종이 숨어 있는 경우를 종종 발견할 수 있다.

53) 芝山先生臨牀學特講 VI, p. 368

54) 許浚 : 對譯東醫寶鑑, p. 192, 197, 203

55) 上揭書, p. 220

56) 上揭書, pp. 278-280

57) 上揭書, p. 419

58) 上揭書, p. 503, 491

59) 上揭書, p. 576, 578, 584

60) 上揭書, p. 595

61) 上揭書, p. 673

62) 上揭書, p. 696 大腹痛多食積外邪, 臍腹痛多積熱痰火, 小腹痛多瘀血及痰與尿泄. 『入門』

63) 上揭書, p. 962, 985

64) 上揭書, pp. 1149-1154

65) 上揭書, p. 1211

66) 上揭書, p. 1244, 1247 喘急者, 氣因火鬱而成, 稠痰在肺胃也. 『丹心』. 喘非風寒傷肺, 則痰火脹肺, 風寒則祛散, 痰火則疎導, 但火急者, 亦不可純用苦寒, 宜溫以劫之, 劫藥見下. 『入門』

67) 上揭書, p. 1397 視聽言動俱妄者, 謂之邪祟, 甚則能言平生未見聞事及五色神鬼, 此乃氣血虛極, 神光不足, 或痰痰火, 非真有妖邪鬼祟也 『入門』

68) 上揭書, p. 1444 流者行也, 注者住也, 或結塊, 或慢腫, 皆因素有痰火, 或感風寒, 邪氣流行, 至其痰注之處而發, 多生四肢, 或胸腹腰髀關節之處 『入門』

69) 許浚 : 對譯東醫寶鑑, p. 1149

70) 芝山先生臨牀學特講 VI, p. 206

條件과 外的條件의 不調和로 人體가 與件에 따라 相應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朴은 痰火를 胃中에 발생하는 痰火 뿐만 아니라 사람이 여건에 상응하지 못하여 氣血이 불균형한 모든 상태를 포괄하여 설명하고 있다. 또한 朴은 精氣가 교합되지 않아 運行이 되지 않는 것을 痰火라고 하였는데, 이는 精이 쌓여서 氣가 되는데 精이 쌓여서 氣가 못되는 것으로, 입은 五臟의 精을 간직한 곳이고 코는 五臟의 氣가 動하는 곳으로 입이 動하여 精을 낳았더라도 氣가 鬱滯가 되어서 相應하지 못한 것으로 설명하고, 이것은 脾胃가 不和한 상태라고 하였다.⁷¹⁾

形象醫學에서는 脾胃에 대한 형상을 대개 코와 입의 관계로 보며, 코는 五臟의 形이 갖추어진 곳으로 脾에 속하고, 입은 음식을 먹어서 담는 곳이니 胃에 속하는데,⁷²⁾ 脾胃가 不和하면 痰火가 생겨 精氣가 교합되지 못하게 된다. 대체로 男子는 코가 크고 입이 작아야 하고, 女子는 입이 크고 코가 작아야 하는데, 男子가 코가 작고 입이 크거나, 女子가 코가 크고 입이 작으면 與件에 잘 相應하지 못하므로 痰火가 잘 생기게 된다.

한편 朴은 “陰陽에 高下가 있듯이 사람 얼굴에도 코는 높고 입은 낮아야 한다. 코와 입이 모두 잘 생겼으면 상호 존재를 앞세우기 때문에 자리다툼을 하게 되고, 자리다툼하는 것을 痰火라고 한다. 水의 火가 金을 낳지 못하고, 金의 火가 水를 낳지 못하는 즉 精氣가 교합하지 못하는 것이다”⁷³⁾ 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해석해보면 水의 火가 金을 낳고 金의 火가 水를 낳는 것은 『內經·陰陽應象大論』⁷⁴⁾에 精化爲氣, 氣歸精이라고 한 바와 같이 腎精과 肺氣의 昇降을 설명하는 것으로, 腎脈을 통하여 精氣가 昇降하는데 心氣가 鬱滯되면 腎精과 肺氣의 水昇火降이 되지 않는 것으로 精氣가 교합되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心은 汗과 小便을 주관한다⁷⁵⁾고 하였는 바, 汗은 肺와 小便은 腎과 연관되므로 心이 精氣의 昇降을 조절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痰火란 어울리지 못하고 싸우는 것으로 가슴이 답답한 것이고 心氣가 鬱滯된 것이다.

요약하면 痰火란 脾胃가 不和하거나, 心氣가 鬱滯되어 精氣가 교합되지 않아 氣血이 불균형한 상태이다.

3) 嘈雜의 形象的 特徵

病은 생긴 대로 오며, 생활 속에서 病이 온다. 즉 모든 생물체의 形象에는 모순이 內在해 있으며 이것은 生活의 法度を 어겼을 때 病으로 나타나므로, 形象을 봄으로써 病의 원인과 변화흐름을 예측할 수 있다.⁷⁶⁾ 嘈雜의 주원인은 痰火이고, 痰火는 脾胃가 不和하거나 精氣가 交合되지 않아 氣血이 불균형한 상태이다. 따라서 嘈雜의 모든 原因에 나타나는 形象的 특징은 人體가 內外 與件에 잘 相應하지 못하는 男子 같은 女子와 女子 같은 男子의 경우에 해당된다. 男子는 鼻위주이며 黑長肥剛하고 女子는

口위주이며 白短瘦柔해야 하는데⁷⁷⁾, 女子가 男子같이 생기면 男子의 일도 하겠다고 덤비게 되는데 막상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七氣가 鬱滯되고, 男子가 女子같이 생기면 心弱하여 七情이 잘 動한다.⁷⁸⁾ 그리고 鼻는 五氣를, 口는 五味를 받아 들어서 津液을 化生함으로써 神을 생기게 하는데⁷⁹⁾, 이것이 되지 않으면 神의 표상인 眼이나 印堂에 색이나 주름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눈꼬리가 위로 올라갔거나, 印堂의 색이 붉거나 흠집이 있으면 嘈雜症이 잘 생긴다. 그 외에 肝이 주관하는 눈썹이 짙은 경우⁸⁰⁾, 市場(胃)⁸¹⁾에 비유되는 山根이 함몰된 경우⁸²⁾, 얼굴에 잡티나 기미가 많은 경우 등은 嘈雜의 形象的 특징이 된다.

한편 形象的으로 大別해 보면, 膽體·膀胱體로 나누어지는데 膽體는 氣盛形衰, 血虛有火하고 胃·心·肝이 좋지 않으며 膀胱體는 形盛氣衰, 氣虛濕痰하고 脾·肺·腎이 좋지 않다.⁸³⁾ 따라서 嘈雜은 마음이 조급해서 動하기를 좋아하고 燥熱이 많아서 胃·心·肝이 좋지 않은 膽體에 잘 생기며 膀胱體에 발생하는 嘈雜은 精이 不足하고 陽이 虛한 男子에게 주로 생긴다. 精氣神血科로 나누어 볼 때 氣科는 氣가 鬱滯하여 胸膈에 맺혀 心氣가 불편한 경우가 많고, 神科는 火가 盛하여 痰火 또는 七情鬱結이甚하므로 嘈雜이 잘 생긴다. 走鳥魚甲類로 나누어 볼 때 鳥類는 대체로 感情變化가 많고, 몸이 더운 火體로 鬱火가 가슴에 맺혀 嘈雜症을 잘 유발한다. 經形 中에서는 陽明形이 多氣多血하기에 욕심이 많아 鬱하기 쉽고,⁸⁴⁾ 胃熱이 盛해서 飲食을 過食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痰火가 發生하여 嘈雜症이 잘 생긴다고 하겠다.

5. 임상예

1) 膽體·膀胱體의 관점

(1) 임상예 185) - 男子 56세

【形】瘦人, 西洋人처럼 鼻大, 눈썹이 짙고, 印堂에 흠집이 있다.

【色】面黑

【脈】76 / 76

【症】신경만 쓰면 불안하고 초조하며 消化가 안된다. 목에 음식이 내려가지 않는다. 呑酸症이 있다. 자주 疲勞하고 자신감이 없으며, 우울하고 화를 잘 낸다. 腰脚痛이 있고, 손발이 저린다. 小便을 자주 본다.(밤에 2-3회)

【既往歷】양방병원에서 신경성위염이라 하여 制酸劑 및 洋藥을 복용하다가 來院.

【治療】平肝順氣保中丸, 增味二陳湯

【考察】이 환자는 胃脘이 좋지 않다. 症狀를 종합해 보면 嘈雜으로 볼 수 있다. 嘈雜에 呑酸症이 있을 때는 增味二陳湯을 쓸 수 있다. 이 男性의 形象的 특징은 눈썹에 짙고 印堂에 흠집이

71) 上揭書, pp. 204-205

72) 芝山先生臨床學特講Ⅳ, p. 133

73) 芝山先生臨床學特講Ⅵ, p. 368

74) 裴秉哲 : 今釋黃帝內經素問, pp. 86-87 水爲陰, 火爲陽. 陽爲氣, 陰爲味. 味歸形, 形歸氣. 氣歸精, 精歸化; 精食氣, 形食味, 化生精, 氣生形. 味傷形, 氣傷精; 精化爲氣, 氣傷於味.

75) 許浚 : 對譯東醫寶鑑, p. 1329 心主便汗, 便汗出多則腎中虛燥, 故令渴. 聖惠.

76) 芝山先生臨床學特講Ⅵ, p. 323

77) 上揭書, p. 357

78) 芝山先生臨床學特講Ⅴ, p. 17

79) 裴秉哲 : 今釋黃帝內經素問, 六節藏象論, p. 135 天食人以五氣, 地食人以五味, 五氣入鼻, 藏於心肺, 上使五色修明, 音聲能彰, 五味入口, 藏於腸胃, 味有所藏, 以養五氣, 氣和而生, 津液相成, 神乃自生.

80) 許浚 : 對譯東醫寶鑑, p. 794 眉屬肝, 故橫生, 粟木氣也. 『醫說』

81) 上揭書, p. 338 胃爲之市. 『內經』

82) 芝山先生臨床學特講Ⅳ, p. 20

83) 上揭書, p. 15

84) 芝山先生臨床學特講Ⅴ, p. 213

85) 芝山先生臨床學特講Ⅳ, pp. 19-20

있는 것이다. 印堂의 흠집은 精氣가 끊어지고, 鬱症이 있음을 뜻한다. 눈썹이 厚大한 것은 多血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의 脈이 肝에 떨어져 肝과 血을 다스려야 함을 의미하고 손발이 저리다는 것은 순환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平肝順氣시켜 肝에 血이 鬱滯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임상예 2 - 윤○○(女子 18세, 2003년 2월 17일 來院)

【形】臍體, 頭大, 입이 나오고 입술이 틀어짐.

【色】面黃, 이마와 印堂에 여드름, 眼下에 煙灰黑色

【脈】79 / 84

【症】消化가 잘 안되고 속이 자주 쓰리다. 惡心, 眩暈, 頭痛. 心悸, 手足汗, 긴장이 잘 된다. 신경 쓰면 泄瀉를 한다. 月經痛(허리보다 배가 아프다).

【治療 및 經過】滋陰健脾湯 투여. 2003년 3월 3일 - 頭痛, 眩暈이 줄어들고 속도 편하고 소화도 잘됨. 手足에 땀나는 것도 줄어들고 泄瀉도 감소됨. 滋陰健脾湯 재투여.

【考察】滋陰健脾湯에서 滋陰이란 陰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것이고, 健脾란 胃의 腐熟 작용과 脾의 消磨 작용을 도와 津液의 生成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다. 상기 환자의 경우는 血虛有火한 臍體로, 머리가 발달되어 있고 입술이 틀어져 있다. 머리는 陰이 충만한 곳으로 머리가 크다는 것은 腦髓와 腎精이 채워지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하며,⁸⁶⁾ 滋陰을 필요로 하고, 입술이 틀어져 있다는 것은 脾胃機能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므로⁸⁷⁾ 健脾가 필요한 形象이다. 症狀의 발현도 脾胃不和로 인한 嘈雜, 惡心, 眩暈, 頭痛 등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이마와 印堂에 잡티가 난 것은 心志가 편하지 못하고 더불어 心脾가 虛怯하여진 것으로, 이로 인해 心悸, 泄瀉, 手足汗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3) 臨床例 3 - 박○○(女子 29세, 2003년 9월 19일 來院)

【形】臍體, 頭大, 印堂에 주름, 찡그린 얼굴

【色】面黃

【脈】71 / 71

【症】속이 자주 쓰리다. 頭痛, 眩暈, 便溏(하루에 2~3회). 心悸, 易驚, 不眠. 體重減少, 추위를 많이 탄다.

【既往歷】1달 전 십이지장궤양 진단 - 洋藥 복용중이나 호전이 없음.

【治療 및 經過】消食清鬱湯 투여.

2003년 9월 29일 - 73/74. 食前後 속쓰림이 50% 감소, 消食清鬱湯 재투여. 2003년 10월 10일 - 72/73. 속쓰림이 거의 없다. 食慾도 증가하여 體重이 1kg 이상 증가. 消食清鬱湯 재투여.

【考察】氣盛形衰하여 血虛有火한 臍體는 마음이 조급해서 動하기를 좋아하고 燥熱이 많으므로 胃·心·肝이 좋지 않다. 그리고 女子는 胃 중심이며 熱하고 머리가 발달되어 있다. 즉 몸은 말랐는데 머리가 큰 女子는 精神이 발달된 女子로 식사시에 머리가 동하여 胃의 소화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食積이 잘 생긴다. 그러므로 消積, 降火, 化痰시키는 消食清鬱湯을 투여하였다.

(4) 임상예 4⁸⁸⁾ - 男子 25세

【形】약간 마른편이며, 눈썹이 美麗하다.

【色】약간 붉은 편이다.

【脈】82 / 78

【症】消化가 잘 안되고 속이 비면 쓰리다. 마음이 편치 않다.

【治療】養血四物湯

【考察】男子가 女子같이 생기거나 女子가 男子같이 생기면 內外의 不和로 인하여 嘈雜症이 오기 쉽다. 瘦하다는 것은 血虛에 속하고 먹는 것에 비하여 잘 動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心血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嘈雜症이 오는 것이다.

(5) 임상예 5 - 박○○(男子 54세, 2002년 9월 24일 來院)

【形】膀胱體, 배가 나오고 이마가 벗겨짐.

【色】얼굴이 붉은 편이다.

【脈】64 / 60

【症】食後에 속이 더부룩하고 트림이 자주 나며 가끔 속이 아프고 쓰리다(소화제 자주 복용한다). 아랫배가 찬 느낌이며, 배에서 소리가 나고 하루에 2~3회씩 무른 便을 보는데 시원하지 않다. 항상 허리가 빠근하게 아프고 피곤하며. 발기력이 매우 감소됨. 小便도 시원하지 않고 囊濕도 있다.

【治療 및 經過】八味丸 투여.

2002년 10월 28일 - 70/70. 요즘은 消化가 잘 되고, 大便을 시원하게 잘 보니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다. 腰痛과 囊濕도 많이 감소됨. 八味丸 재투여.

【考察】뚱뚱하고 배가 큰 陰盛陽虛한 膀胱體로 얼굴색이 붉은 것은 面戴陽症⁸⁹⁾으로 下元의 元陽인 命門火가 쇠약해진 것으로 下腹의 律動이 제대로 되지 않아 食後에 더부룩하고 消化가 되지 않으며 배가 차고 大便이 시원하지 않은 것이다. 비유하면 술 안에 여러 가지 穀食을 넣고 술 밑에 불을 때지 않으면 온종일 있어도 穀食이 익지 않는 것과 같은 현상이다. 또한 脈이 腎-三焦에 떨어지므로 腎陽虛한 腰痛과 囊濕이 나타나고 大小便도 시원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命門火를 돋우는 八味丸을 투여하여 좋은 효과를 보았다.

2) 精氣神血의 관점

(1) 임상예 6⁹⁰⁾ - 女子 58세

【形】精料, 콧대가 강하다.

【色】약간 누렇다.

【脈】67 / 68

【症】獨身女인데, 갑자기 마음이 불안하고 쫓기는 듯하다. 마음이 편치 못하고 등과 허리가 아프다. 뒷목이 뻣뻣하고 입에서 뜨거운 김이 나온다.

【治療】化痰清火湯

【考察】女子가 혼자 산다는 것은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는 뜻이다. 그래서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다. 왜냐하면 女子가 男子 일을 하면 불안하므로 嘈雜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입에서 熱氣가 난다면 清火시켜야 함으로 化痰清火湯을 써야한다. 왜냐하면 입이란 心에 속하기 때문이다. 女子가 男子 같고, 男子가 女子 같으면 嘈雜이 잘 생긴다.

(2) 임상예 7 - 구○○(女子 53세, 2002년 3월 21일 來院)

86) 芝山先生臨床學特講Ⅱ, p. 391

87) 許波: 對譯東醫寶鑑, p. 317

88) 芝山先生臨床學特講Ⅳ, pp. 350-351

89) 上揭書, p. 513 面戴陽者, 浮火所衝也. 又曰, 面戴陽者, 面雖赤而不紅活, 乃下虛也. 醫者不察, 誤用涼藥, 則氣消而成大病矣. 「入門」

90) 芝山先生臨床學特講Ⅳ, p. 190

【形】氣科, 印堂이鬱, 強하게 생김.

【色】잡티가 많아서 거무튀튀하다. 입주위가 특히 누렇다.

【脈】68 / 70

【症】식사와 관계없이 트림이 잘나고 신물이 올라온다. 속이 쓰리고 아프다. 얼굴이 잘 달아 오르고 頭痛이 있다. 胸悶, 한숨을 자주 쉬. 心悸, 易驚, 不眠. 아침에 일어나면 잘 붓고, 手足痺, 肩背痛, 腰痛

【既往歷】1달 전에 회를 먹고 腹痛을 유발함. - 내시경상 고래회충 진단 받고 양방 처치 및 洋藥 1주일 복용.

【治療 및 經過】消食清鬱湯

2002년 4월 2일 - 74/72. 속이 쓰리고 아픈 증상은 없고 가끔 트림은 난다. 消食清鬱湯 재투여. 2002년 4월 23일 - 77/77. 속도 많이 편하고 胸悶, 頭痛, 上熱感도 줄어들고 잠도 잘 잔다. 消食清鬱湯 재투여.

【考察】상기 환자는 氣科 女子로 氣가鬱滯하여 병이 잘 발생하는데 氣는 火의 색으로⁹¹⁾ 氣가鬱滯하면 火가動하고 痰을 형성하게 된다. 더구나 이 환자는 얼굴색이 검고 강하게 생겨서 男子처럼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精神과 肉體의 乖離가 생겨鬱하기 쉬우며, 印堂이鬱한 것은 心氣가鬱滯한 것으로, 마음이 편치 못해서 心膈虛怯⁹²⁾한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체의 전면은 升散空虛해야 하고 후면은 集降滿實해야 하는데, 脈이脾-小腸으로 膈에 떨어진 것은 인체의 전면에 병이 생긴 것으로 升散空虛해야 할 전면에 七情이나 食積으로 內傷病이 생긴 것이다. 그러므로 이 환자는 평상시 脾胃가不和하여 嘈雜症이 있는데, 얼마 전 食積으로 인해 胃가 더욱 손상을 받아서 제반 증상이 악화되고 胃氣가 회복되지 못하는 상태로 消食清鬱湯을 투여하여 좋은 효과를 보았다.

(3) 임상예 8⁹³⁾ - 女子 45세

【形】氣科(마름모형), 관골이 크다, 甲類, 陽明形, 안경(근시)

【脈】83 / 84

【症】頭痛이 있고, 가슴이 터질 듯 熱이 난다. 눈물이 많고 눈이 찢찢하다. 절망적인 생각과 혼자 불행한 듯한 생각이 난다. 평소 신중하다.

【治療】化痰清火湯

【考察】이 사람은 氣科로, 얼굴이 거북등판 모양처럼 각이 지고 관골이 크다. 또 이 사람은 甲類라서 남보다 못하면서 남의 위에 서려한다. 즉 거북이는 물에서는 고기보다 못하고 물에서 말보다 못하다. 또한 陽明形은 욕심이 많다. 이 사람은 삼성장군 감의 얼굴이다. 즉 출세하여 남을 부리고 싶은 사람이다. 그러다 보니 자기 속을 스스로 꿰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女子는 자기 뜻대로 하지 못해서 痰火가 생길 수 있는 形象의 조건을 고루 갖고 있는 사람이므로, 이로 인하여 嘈雜症이 온 것이다.

(4) 임상예 9 - 우○○(女子 43세, 2001년 5월 4일 來院)

【形】膈體, 氣科, 印堂에 주름(川), 눈꼬리가 올라감.

【色】기미가 많아서 거무튀튀하다.

【脈】72 / 69

【症】기분이 나쁘면 속이 쓰리고 아프다. 梅核氣, 胸悶, 한숨을 자주 쉬. 不眠, 心悸, 上熱感, 頭痛이 자주 발생하고, 축농증도 있다. 手足이 자주 저리고 떨린다. 月經量이 적고 색이 검다.

【既往歷】신경안정제와 두통약 자주 복용함.

【治療 및 經過】消食清鬱湯 투여.

2001년 5월 18일 - 70/70. 기미가 감소되어 얼굴색이 밝아짐. 소화 잘되고 잠도 잘오고 그동안 두통약 한번도 복용 안함. 消食清鬱湯 재투여.

【考察】코는 五氣를, 입은 五味를 받아 들여서 津液을 化生함으로써 神을 생기게 한다.⁹⁴⁾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神의 표상인 눈이나 印堂에 색으로 나타난다. 이 환자는 氣가 울체하기 쉬운 氣科로 氣가升降出入 및 변화를 하지 못하여鬱이 생기고, 눈꼬리가 올라가고 印堂에 주름이 있는 것으로 봐서 火가 잘動하고 예민하여서 精氣가 교합되지 않아 心膈虛怯한 증상과 함께 脾胃가不和한 嘈雜症이 잘 유발되는 유형이다.

(5) 임상예 10⁹⁵⁾ - 女子 34세

【形】안경을 썼으며, 코가 強하고 관골이 발달한 사람이다.

【脈】69 / 67

【症】미장원 일을 하는 분인데, 소화가 안되고 헛배가 부르고 便이 무르다. 좌측 얼굴이 불편하다. 발바닥이 가렵다. 生理가 덩어리져서 나오고, 등이 많이 아프다.

【治療】香砂平胃散

【考察】女子가 男子 같이 생기면 脾胃不和로 嘈雜症이 오기 쉽다. 이것은 脾胃가 나빠서 온 것이다. 한의학에서는 五臟의 大小를 耳目口鼻를 통하여 살핀다. 따라서 耳目口鼻는 五臟의 象으로 존재물로 인식한다. 女子는 입이 발달하고 코가 작은 것이 좋다. 상기 환자는 코가 발달하였는데, 이러한 경우는 코를 脾臟으로 보고 입을 胃臟으로 보아 脾胃不和로 본다. 脾臟이 나쁘니 平胃散을 쓴다. 안경을 썼으니 성질이 급할 것이다. 따라서 香砂平胃散을 쓴다.

(6) 임상예 11 - 김○○(男子 16세, 2003년 12월 29일 來院)

【形】神科, 눈썹이 진하다, 눈꼬리가 올라감.

【色】面赤, 얼굴에 여드름이 많다.

【脈】75 / 77

【症】식후에 泄瀉를 자주하고, 자다가 속이 쓰리고 아파서 자주 깬다. 淺眠, 胸悶, 신경이 예민한 편이다. 축구 선수인데 운동 중에 빨리 지치고, 자주 피곤하다. 발목 뻐 것이 오랫동안 안 낫고 아프다.

【治療 및 經過】養血四物湯 투여.

2004년 1월 12일 - 80/79. 요즈음 泄瀉도 하지 않으며, 새벽에 속이 쓰리고 아프지 않아서 잠을 잘 잔다. 식욕도 증가하여 체중이 2kg 증가하고, 발목이 안 아프고, 피곤이 훨씬 덜하다. 여드름도 많이 감소하였음.

【考察】胃가 나쁠 경우에 胃自體가 나쁜 경우가 있고, 脈(心)이 나빠서 올 경우가 있고, 血이 나빠서 올 수도 있는데,⁹⁶⁾ 이 환

91) 許浚: 對譯東醫寶鑑, p. 173 ...氣陽也, 動則爲火...

92) 許浚: 對譯東醫寶鑑, p. 301 五臟穿繫論曰, 心與膈相通, 心病怔忡宜溫膈爲主, 膈病戰慄·癡狂宜補心爲主. 「入門」.

93) 芝山先生臨床學特講IV, pp. 318-319

94) 裴秉哲: 今釋黃帝內經素問, 六節藏象論, p. 135

95) 芝山先生臨床學特講IV, pp. 128-129

96) 芝山先生臨床學特講IV, p. 41

자의 경우는 血이 부족하여 胃가 나빠진 것이다. 운동선수이면서 16세면 한창 성장할 나이이지만, 形象의 특징상 눈꼬리가 올라간 神眇이므로 성격이 예민하고 감정 변화에 매우 민감한 편이며 가만히 있지 못하기 때문에 陰血이 부족해지기 쉽다. 또한 눈썹이 짙으며, 얼굴이 붉은 것은 心火가 盛하여 心血이 부족한 것으로 七情이 鬱結되면 血虛嘈雜증을 유발하게 되고, 이로 인해 속면을 취하지 못하게 되면 陰血을 보충하지 못하여, 陰血이 더욱 虛해져 얼굴에 여드름이 생기고 筋骨이 약해지므로 발목이 낫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腹部는 陰血의 표상이고 가슴은 陽氣의 표상으로, 陰血이 虛해지면 腹直筋이 拘攣하여 泄瀉를 자주 하는 것으로, 肝-大腸의 共變關係⁹⁷⁾로 인한 것이다.

(7) 임상예 12⁹⁸⁾ - 女子 12세

【形】天垂象, 목이 길고, 근시와 난시가 있어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안경을 착용했다. 이마와 印堂부위에 여드름이 있다. 눈꼬리가 들렸고, 윗입술이 나오고 입을 벌리고 있다. 손발이 길다.

【色】얼굴이 누렇다.

【脈】106 / 106

【症】차멀미가 심하며, 痰飲의 증상이 있다. 손발이 차고, 긴장하면 배가 잘 아프다. 신경을 쓰면 간혹 손이 떨린다. 먹기는 잘 먹는데 살이 안 쪼다. 잠을 자더라도 꿈자리가 뒤숭숭하다.

【治療】滋陰健脾湯, 定志丸

【考察】이 환자는 脈이 肺-膀胱에서 膀胱에 떨어졌다. 이는 心腎이 나쁜 것으로 근원이 나쁘다는 얘기이다. 또 印堂에 여드름이 있다는 것은 心氣가 鬱해 있는 것으로 마음이 편치 못하여 心腎의 교합이 잘 안되어 잠을 자더라도 꿈자리가 뒤숭숭하다. 얼굴을 藏象으로 볼 때에는 藏의 外症, 內症과 色을 우선으로 본다. 얼굴색이 누르면 脾臟의 문제니까 健脾시켜야 한다. 또 아이는 입을 벌리고 있으므로 內傷이 잘 올 수 있다. 그리고 눈꼬리가 올라간 것은 火로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머리가 아플 수 있다. 종합하면 內傷痰火로 인하여 嘈雜이 온 것이다. 이때에는 속이 느글느글하고 미식했다가 머리가 어지럽고 골이 아프게 된다.

(8) 임상예 13⁹⁹⁾ - 男子 55세

【形】얼굴이 길며, 눈이 함몰되었으며, 蘭臺에 점이 있다.

【色】얼굴이 누렇다.

【脈】76 / 76

【症】心下痞가 있으나 소화불량을 크게 못 느낀다. 공복에는 속이 편하나 밥먹기가 겁나며 체중이 감소하였다. 혀에 白苔가 끼고 목구멍 속이 충혈된다. 딸꾹질 비슷하게 구역질이 나는데, 이때 혀끝이 몹시 아프다. 우측 肋下가 硬結되어 있다. 예전에 배가 아프면서 밑으로 허리까지 아프곤 하였다.

【既往歷】젊어서 위가 나빠서 고생을 하였다.

【治療】香砂平胃散

【考察】이 병은 食積과 熱로 인한 것이다. 얼굴이 누렇고 공복에 속이 편하나 밥 먹기가 겁나는 것은 食積이 있는 것이다. 눈이 陷沒된 것은 脾胃가 虛弱하여 運行이 안되어 음식을 먹으면 피가 되고 살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고, 또 蘭臺에

점이 있는 것은 좌우의 균형이 맞지 않는 疝症의 形象으로 生殖器가 약한 것이다. 길불이 약하면 밑에서 빨아 당기는 힘이 약하여 밥이 잘 내려가지 않는다. 그래서 밑이 당기고 아픈 것이다. 이 환자는 신경을 쓰면 안되는데, 겉으로 보기에 상냥해도 마음이 우울할 것이다. 혀란 心臟의 싹이다. 혀가 나쁜 것으로 보아 心嘈로 판단하고 食積과 嘈雜을 치료하는 香砂平胃散을 투여하였다.

3) 走鳥魚甲類의 관점

(1) 임상예 14 - 박○○(男子 25세, 2003년 5월 16일 來院)

【形】膽體, 走類, 눈썹이 진하다.

【色】얼굴이 조금 붉고, 口脣이 赤하며 乾燥하다.

【脈】80 / 76

【症】소화가 잘 안되고 가슴이 답답하다. 특히 새벽만 되면 속이 쓰리다. 신경을 쓰면 얼굴이 잘 달아오르고 어지럽다. 신경이 예민한 편이며, 자고 나면 종아리가 빠근하게 아프다. 腹直筋이 긴장되어 있다. 便秘

【既往歷】양방 병원에서 위궤양 진단 받고 洋藥 복용 중임.

【治療 및 經過】養血四物湯 투여.

2003년 5월 30일 - 80/80. 새벽에 속쓰린 것이 많이 감소되고 上熱感과 胸悶症도 줄어들음. 養血四物湯 재투여.

【考察】走類는 五行 중 木에 속하며 그 形象의 특징은 兎와 側面, 手足이 발달되었고 행동이 민첩하고 분노를 잘 일으키며 五臟중 肝과 많은 연관을 가진다. 肝藏血, 主疏泄, 主筋하므로 情志가 抑鬱하여 肝의 疏泄기능에 장애가 생기고 肝血이 부족해지면 口脣赤乾燥, 煩燥易怒, 頭目眩暈, 筋脈拘急 등의 증상이 발생한다.¹⁰⁰⁾ 또한 血이 虛해지면 脈이 나쁘게 되고 榮衛의 운행이 안되어서 胃가 나빠지게 되어 嘈雜症이 생기게 된다. 그리고 눈썹이 진한 것은 血氣가 상한 것으로 心力을 과다하게 사용하므로 마음이 항상 편하지 않기 때문에 소화가 안 되는 것이다.¹⁰¹⁾ 즉 思慮過多하여 心火가 動하면 心血을 傷하기 때문에 血虛有火한 유형의 嘈雜症을 유발하게 된다.

(2) 임상예 15 - 정○○(女子 35세, 2002년 4월 20일 來院)

【形】鳥類, 神眇, 눈가에 주름.

【色】面黃, 피부가 깨끗하지 못함, 眼下에 煙灰黑色.

【脈】82 / 86

【症】속이 더부룩하고 쓰리다. 가끔 惡心, 眩暈, 頭痛이 있다. 신경이 예민한 편이며, 梅核氣가 있고, 잠을 늦게 잔다. 요즈음 肩背痛도 있고, 허리도 아프다. 大小便이 시원하지 않고, 아침에 약간 붓는다.

【既往歷】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1년간 洋藥 복용.

【治療 및 經過】香砂平胃散

2002년 5월 10일 - 83/83. 속이 많이 편하고 아침에 붓지 않는다. 大小便도 좋아지고 어깨와 허리도 편하다. 香砂平胃散 재투여.

【考察】상기 환자는 火體인 鳥類로 눈이 발달되고 잘 웃으며 사교적이거나, 질투심이 많고 마음이 항상 焦燥·不安하므로 신경성 질환에 잘 걸리며 허리와 다리가 약한 편이다. 따라서 주위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七情이 鬱結하면 가슴과 胃중에

97) 許浚: 對譯東醫寶鑑, p. 301

98) 芝山先生臨床學特講Ⅲ, pp. 193-195

99) 芝山先生臨床學特講Ⅴ, pp. 278-279

100) 文滄典, 安圭錫, 崔昇勳: 東醫病理學, p. 331

101) 芝山先生臨床學特講Ⅴ, p. 384

서鬱火가 잘 생기고, 淸濁이 분별되지 않아 가슴이 답답하고 명치 끝이 불편한 心嘔症을 유발하게 된다. 그러므로 鳥類 嘔雜에 대표적인 처방인 香砂平胃散을 투여하였다.

(3) 임상예 16 - 남○○(女子 61세, 2002년 9월 12일 來院)

【形】鳥類, 찡그린 얼굴, 山根에 주름이 있고 함몰됨.

【色】面黃. 印堂이 붉다.

【脈】76 / 79

【症】속이 미씩거리고 신물이 올라옴. 헛배가 부르고 밥 생각이 없다. 心悸, 怔忡, 不眠, 胸悶, 肩背痛

【既往歷】양방의 소화제, 변비약, 수면제 복용 中.

【治療 및 經過】香砂平胃散 투여.

2003년 7월 26일 - 67/70. 약 복용 후 소화도 잘 되고 식욕도 증가하였으나, 요즈음 상기 증상이 다시 나타나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고 뻥긴다고 來院함.

【考察】胃는 음식물이 들어가는 곳인데 다섯 가지 맛이 모두 들어가기 때문에 시장 거리처럼 복잡하므로 시장과 같다고 한다. 얼굴에서는 山根이 시장과 같이 모이는 곳으로 胃에 비유될 수 있다.¹⁰²⁾ 또한 山根은 心-膈과 胞-胃의 경계로 색이 안 좋거나 흠이 있으면 心氣가鬱滯된 것이며, 女子에게는 뿌리가 끊어진 것으로 胞와 胃는 內外關係로 인체의 근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신경이 예민하고 감각의 변화가 심한 鳥類가 心氣가鬱滯하여 胃가 나빠진 것이다. 그러므로 香砂平胃散을 투여하여 좋은 효과를 보았으며, 아울러 洋藥을 많이 복용하였으므로 紫金錠을 같이 투여하여도 좋을 것이다.

4) 六經形의 관점

(1) 임상예 17¹⁰³⁾ - 女子 30세

【形】肥人, 地積象, 陽明形

【色】얼굴이 약간 검은 편이다.

【脈】52 / 52

【症】속이 쓰리고, 쓰릴 땀 숨을 못 쉴 정도로 숨이 차다. 소화가 안되고, 트림이 가끔 나온다.

【治療】化痰清化湯

【考察】이 환자는 陽明形으로 過食으로 인한 內傷이 올 수 있으며, 또 女子가 얼굴이 검은 편이므로 痰火가 있을 수 있고, 脈이 三焦에 맞아 膈에 떨어졌으므로 七情이鬱해서 病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증상은 嘔雜症인데 주로 嘔雜의 원인은 痰火다. 그런데 陽明形이므로 胃熱을 풀어주는 石膏가 들어간 化痰清化湯을 쓴 것이다.

(2) 임상예 18 - 홍○○(女子 43세, 2002년 12월 2일 來院)

【形】陽明形, 頭大

【色】浮澤赤

【脈】82 / 78

【症】공복시 속이 쓰리고, 신물이 올라온다. 식사 불규칙, 폭식. 頭痛, 肩背痛, 가끔 허리와 무릎도 아프다. 자고 나면 붓고,手足이 저리다. 피부도 자주 가렵다. 大小便 不利

【治療 및 經過】化痰清化湯 투여.

針 治療 - 中腕·豐隆·足三里·肩井·膈俞, 濕附缸

【考察】상기 환자는 多氣多血한 陽明形으로, 陽明形은 胃에 熱이 많아 過食이나 暴食을 하게 되어 脾胃의 運化에 장애가 생기면 濕熱이 발생하여 吞酸·嘔雜症을 유발하고, 또한 男子같이 생긴 女子는 男子의 일도 하겠다고 덤비게 되는데, 막상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七氣가鬱滯하여 痰火가 잘 動하게 되므로 嘔雜症이 생기게 된다.¹⁰⁴⁾ 한편 얼굴이 浮澤赤 한 것은 濕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濕熱이 오랫동안 풀어지지 않으면 榮衛循環의 장애가 생기고 12經脈의 운행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手足이 저리고 피부가 가렵고, 아울러 關節이 不利하여 肩背痛 및 허리와 무릎에 통증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火를 내리고 痰을 삭히며 健脾除濕시키는 化痰清化湯을 투여하였다.

(3) 임상예 19¹⁰⁵⁾ - 男子 44세

【形】陽明形, 입이 크다.

【脈】68 / 68

【症】속에서 熱이 많이 나는데 밤에 더 심하다. 記憶力이 자꾸 떨어진다. 술을 많이 먹는다.

【治療】化痰清化湯

【考察】男子인데 입이 크므로 女子로 판단한다. 男子가 女子같이 생기면 소심하여 七情이 잘 動한다. 속에 熱이 난다고 말하는 것은 嘔雜의 증상이다. 陽明形이므로 化痰清化湯을 투여하였다.

(4) 임상예 20¹⁰⁶⁾ - 女子 60세

【形】肥人, 陽明形, 印堂부위에 사마귀 비슷한 것이 있다.

【色】面白, 痰飲氣가 있다.

【脈】74 / 68

【症】머리가 아프다고 침을 맞으러 왔다.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된다. 변비가 있으며 발바닥이 갈라진다.

【治療】正頭痛: 百會·上星·神庭·太陽·合谷에 刺針(女爲主右側). 化痰清化湯

【考察】印堂 부위에 사마귀 비슷한 것이 있는 것은 그 곳을 잘 봐달라는 뜻이다. 따라서 이 사람은 마음이 불편하며鬱하기가 쉽다. 또한 心肺 부위가 안 좋은 것이다. 이 약을 복용하면 변비나 발바닥 갈라지는 것도 나올 것이다.

(5) 임상예 21¹⁰⁷⁾ - 女子 47세

【形】陽明形, 눈꼬리가 올라가 있다.

【色】관골이 붉다.

【脈】68 / 70

【症】가슴이 답답하고 손발이 화끈거린다. 식사 때를 지나면 속이 헉헉하고 기운이 없다. 이른 아침이나 새벽에 속이 약간 쓰리다. 피부가 가렵고, 간혹 머리가 어지럽다. 무릎이나 발목이 잘 아프고 간혹 붓는다.

【既往歷】병원에서 신경성 위염이라 하여 치료받은 적이 있다.

【治療】化痰清化湯

【考察】이 여성의 눈꼬리가 들린 것으로 봐서 마음이 편치 못해서 온 心嘔症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脈을 보면 膈에

102) 芝山先生臨床學特講 I, p. 135, 321

103) 芝山先生臨床學特講 III, pp. 80 81

104) 芝山先生臨床學特講 I, p. 44

105) 芝山先生臨床學特講 III, p. 133

106) 芝山先生臨床學特講 IV, pp. 26-27

107) 芝山先生臨床學特講 II, pp. 204-205

어졌으니까 七情病이라는 것이 증명된다. 그리고 胞는 胃와 內外關係이므로 자궁의 혹은 胃脘을 좋게 하면 풀어지게 되어 있다.

5) 耳目口鼻의 관점

(1) 임상예 22108) - 男子 39세

【形】 눈썹이 짙고 눈이크다. 입술에 흠집이 났다.

【色】 얼굴이 누런 편이다.

【脈】 84 / 90

【症】 신경쓰면 소화가 안된다. 左側 面·手·足이 빠근하다.

어제 저녁부터 왼손이 아프다. 식은땀이 난다.

【治療】 養血四物湯

【考察】 이 사람은 女子처럼 예쁘고 心弱하다. 증상으로 보아 嘈雜症이다. 반쪽이 나쁘거나 上下가 나쁘다는 것은 胃가 안 좋다는 얘기다. 즉 化氣活血이 안 돼서 그런 것이다. 그런데 左側은 血에 속하고, 또 눈썹이 짙은 것도 血이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볼래 눈썹이 짙으면 少氣多血이므로 多血해야 되는데, 지금은 胃가 나빠서 生血을 못하므로 血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게 되어 병이 생긴다. 또 面部는 胃에 속한다. 胃가 나쁘기 때문에 얼굴이 누렇게 되고, 입술에 흠집이 난 것도 胃가 나쁘기 때문에 음식을 먹으면 피가 되고 살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여 血이 부족하게 됨으로 養血四物湯을 썼다.

(2) 임상예 23109) - 男子 16세

【形】 눈썹이 진하다.

【脈】 70 / 72

【症】 불안하면 不眠症이 오고, 頭汗이 나며, 눈이 빠지는 듯하다. 소화가 어렵다.

【既往歷】 전에 項強症이 있었다.

【治療】 養血四物湯

【考察】 눈썹이 진하면 少氣多血하다. 즉 血氣가 盛하니 머리가 좋고 노력을 과다하게 한다. 그래서 항상 마음이 편치 않기 때문에 소화가 안된다.

(3) 임상예 24110) - 男子 21세

【形】 눈썹이 진하며, 측면이 발달하였다.

【色】 血色이 나쁘다.

【脈】 86 / 82

【症】 소화가 안된다.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다. 左側 가슴과 어깨가 아프다.

【治療】 養血四物湯

【考察】 男子가 눈썹이 진하면 血氣가 왕성한 것이다. 즉 男子가 女子같이 생긴 것이다. 따라서 마음이 스스로 편치 못하며 아프다면 全身이 다 아프고 마음이 편하면 하나도 아프지 않다. 속이 답답한 기운을 트립하고, 느긋느긋하고 미식미식하며, 목에서부터 가슴에 걸쳐서 아픈 것이다. 이것은 痰火의 작용이다. 그래서 이 환자의 경우에는 養血四物湯을 쓴 것이다.

(4) 임상예 25111) - 女子 33세

【形】 눈썹이 짙고 길다.

【色】 面黃

【脈】 76 / 72

【症】 ① 입맛은 좋는데 가슴이 답답해서 음식이 내려가는 것이 거북하다. 惡心, 噯氣. 어지럽고 눈이 피곤해서 눈을 뜨기가 힘들다. 허리와 엉치 부위가 아프다. 성질이 급하고, 혼자서 잡념을 많이 하는 편이다.

【既往歷】 병원에서 신경성 위염이라 하여 치료받은 적이 있다.

【治療】 養血四物湯

【考察】 陰陽에 高下가 있듯이 사람의 얼굴에도 코는 높고 입은 낮아야 한다. 코와 입이 모두 잘 생겼으면 자리다툼을 하게 된다. 즉 자리다툼하는 것은 상호존재를 앞세우는 것으로 한의학에서는 痰火라고 한다. 痰火는 精氣가 교합되지 못하는 것인데, 이럴 때 脈이 많이 뛰면 病이 발생하는 階位가 머리에 속하므로 머리가 아플 것이요, 脈이 중앙에 걸치면 內傷으로 보아 內傷 痰火가 된다. 嘈雜症은 기분이 좋으면 아프지 않다가 기분이 나쁘면 다 아프게 되는데, 상기 환자는 눈썹이 잘 생겼기 때문에 養血四物湯을 썼다.

(5) 임상예 26112) - 男子 30세

【形】 印堂이 함몰하고, 근시이며, 눈가에 주름이 있다.

【脈】 75 / 74

【症】 컴퓨터 회사에 근무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고 자주 체한다.

【治療】 香砂平胃散

【考察】 印堂이 흐린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것이다. 눈가에 주름이 많다는 것은心を 많이 써먹은 것이다. 脈이 膈에 떨어지면 七情病으로 본다.

(6) 임상예 27113) - 女子 40세

【形】 예민하게 생겼다.

【色】 관골이 붉다.

【脈】 60 / 62

【症】 전에 大造丸과 補陰散을 먹고 효과를 본 사람인데, 腰痛과 四肢關節 마디마디가 아프다. 소화불량, 吞酸, 속 쓰리고 밥맛이 없다. 우측 장단지가 저리저리하게 아프다. 上體는 좁고 발이 화끈거린다. 소변을 자주 본다.

【既往歷】 예전에 결핵을 앓은 적이 있다.

【治療】 香砂平胃散

【考察】 肉臑은 胃經에 속한다. 속 쓰리고 아픈 것은 心嘈로 본다. 사지 관절은 胃로 본다. 이 사람은 胃經이 나쁘니 濕熱을 제거해 주어야 된다. 일단은 胃經을 좋게 해주고 나중에 補陰散을 써야 한다.

(7) 임상예 28114) - 女子 18세

【形】 눈썹이 美麗하고, 입술이 건조하다.

【脈】 72 / 74

【症】 기분이 좋으면 아픈 데가 없고 기분이 나쁘면 가슴이 답답하면서 정신집중이 안된다. 밤에 침을 흘릴때가 있다. 피부가 건조하고 비듬이 많은 편이다. 특히 겨울에 발꿈치가 갈라지고 털이 자꾸 빠진다. 月經이 不順하다.

108) 芝山先生臨床學特講Ⅳ, pp. 45-46

109) 芝山先生臨床學特講Ⅴ, p. 384

110) 芝山先生臨床學特講Ⅴ, p. 277

111) 芝山先生臨床學特講Ⅳ, pp. 366-369

112) 芝山先生臨床學特講Ⅳ, p. 362

113) 芝山先生臨床學特講Ⅳ, pp. 241-242

114) 芝山先生臨床學特講Ⅵ, pp. 68-72

【治療】養血四物湯

【考察】이 환자의 경우 눈썹이 美麗하다는 것은 少氣多血하다는 것이고, 피부가 거칠기 때문에 氣血病으로 봐야 한다. 氣血은 피부의 腠理를 통하여 水火昇降이 되는 것인데, 피부가 거칠다는 것은 昇降이 정상을 잃어서 피부의 開闔작용이 안 돼서 오는 것이다. 그리고 血이 허해지면 脈이 나쁘게 되고 榮衛의 순환이 안되어서 땀이 나빠지게 되어 噎氣를 겸하고 痞滿을 겸하며, 혹은 惡心을 겸하면서 점점 胃脘까지 아플 수가 있다. 또한 나이가 신경이 예민한 시기여서 嘈雜이 잘 올 수 있으므로 가슴을 풀어주는 것이 원칙이나, 가슴은 氣血이 모이는 곳이므로 먼저 氣血의 균형을 잡아 주는 養血四物湯을 투여하였다.

이상의 嘈雜에 대한 考察 및 臨床例(33例)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形象的으로 살펴보면, 女子가 男子같이 생기거나 男子가 女子같이 생기면 內外與件에 잘 상응하지 못하여 痰火가 쉽게 유발되어 嘈雜이 되었으며, 膽體·膀胱體로 볼 때는 膽體가 氣盛形衰, 血虛有火하고 胃·心·肝이 좋지 않아 嘈雜이 유발되었고, 膀胱體의 嘈雜은 精이 不足하고 陽이 虛한 男子와 男子같이 생긴 肥人, 陽明形의 女子에게 주로 발생하였다. 한편 精氣神血科로 보면 氣가 鬱滯하기 쉬운 氣科와 火가 盛하여 痰火 또는 七情鬱結이 잘 생기는 神科에 많았다. 走鳥魚甲類로 보면 감정변화가 많고 鬱火가 가슴에 잘 맺히는 鳥類에게 嘈雜이 잘 유발되었고, 六經形으로 보면 多氣多血하기에 욕심이 많아 鬱하기 쉽고 胃熱이 盛해서 음식을 과식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痰火가 잘 발생하는 陽明形이 많았다. 耳目口鼻로 보면 印堂이나 이마에 여드름이나 흠집, 주름이 있거나 색이 붉은 경우와 눈썹이 짙은 경우 및 눈꼬리가 올라간 경우가 嘈雜의 形象的 特徵으로 나타나고 있다. 症狀의으로 살펴보면, 감정변화와 연관이 있으며 惡心, 噎氣, 吞酸, 胃脘痛, 腹脹, 大便不利 등의 胃腸疾患 뿐 만 아니라 痰火로 인해 유발되는 頭痛, 眩暈, 小便不利, 胸悶, 手足痺, 皮膚疾患 및 血虛로 인한 心悸, 怔忡, 不安, 不眠 등의 症狀를 동반하여 나타나고 있다.

治療에 있어서는 形色의 전체하에 症狀와 脈이 고려되었으며, 胃熱이 盛한 陽明形의 경우엔 化痰清化湯을, 눈썹이 진해 血氣가 盛하여 많이 써먹음으로써 血이 虛해져 胃가 나빠진 경우엔 養血四物湯을, 走類나 血科의 肝火로 인한 脾胃不和엔 平肝順氣保中丸을, 火體인 鳥類의 脾胃不和로 인한 경우엔 香砂平胃散을, 氣가 鬱滯하기 쉬운 氣科의 脾胃不和엔 消食清鬱湯을, 腎陽이 虛寒한 膀胱體의 男子에겐 八味丸을 주로 투여하였다.

결 론

嘈雜을 形象醫學의으로 考察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嘈雜은 噎氣, 惡心, 吞酸, 胃脘痛 등의 胃腸疾患이 나타나는데 甚하면 가슴이 몹시 답답하고 괴로워 안정을 못하는 懊懣症을 겸하며 그 증상의 발현이 感情에 따라 時作時止하는 특징이 있다. 嘈雜은 朱震亨의 『丹溪心法』에 이르러 懊懣와 구분되어 嘈雜 또는 心嘈라 命名하고, 그 원인을 주로 痰火로 보고,

그 치료 방향을 제시하였다. 嘈雜의 원인은 痰因火動, 食鬱, 思慮傷心으로 인한 血虛, 腎陽虛寒으로 인한 寒痰停蓄으로 나눌 수 있으나, 주원인은 痰火로 귀결된다. 痰火란 脾胃가 不和하거나 心氣가 鬱滯해서 精氣가 교합되지 않아 氣血이 不均衡한 상태로 이는 內的條件과 外的條件의 不調和로 인체가 여건에 따라 상응하지 못하여 발생한다. 嘈雜의 形象的 特徵은 男子같은 女子, 女子같은 男子, 印堂이 어둡거나 붉으며 주름이나 흠집이 있는 경우, 눈꼬리가 올라간 경우, 눈썹이 짙은 경우, 山根이 함몰된 경우, 얼굴에 잡티가 많은 경우이며, 膽體, 氣科, 神科, 鳥類, 陽明形 등에 잘 나타난다. 嘈雜의 치료에 있어서 陽明形의 경우엔 化痰清化湯을, 눈썹이 진해 血氣가 盛한 경우엔 養血四物湯을, 鳥類의 경우엔 香砂平胃散을, 氣科의 경우엔 消食清鬱湯을, 腎陽虛寒한 膀胱體 男子의 경우엔 八味丸을 주로 투여하였다.

참고문헌

1. 許浚 : 對譯東醫寶鑑, 서울, 法仁文化社, 1999.
2. 裴秉哲 : 今釋黃帝內經素問, 서울, 成輔社, 1999.
3. 張機 : 金匱要略辨釋, 서울, 韓國文化社, 2002.
4. 張機 : 傷寒論譯註, 서울, 高文社, 1987.
5. 朱震亨 : 丹溪心法附餘, 서울, 大星文化社, 1993.
6. 虞搏 : 醫學正傳, 서울, 成輔社, 1986.
7. 李挺 : 編註醫學入門, 서울, 大星文化社, 1994.
8. 龔信 : 萬病回春, 서울, 一中社, 1994.
9. 張介賓 : 景岳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88.
10. 周命新 : 醫門寶鑑, 대구, 東洋綜合通信教育院出版部, 1987.
11. 大韓傳統韓醫學會 編著 : 芝山先生臨床學特講 I, 서울, 芝山出版社, 1996.
12. 大韓傳統韓醫學會 編著 : 芝山先生臨床學特講 II, 서울, 芝山出版社, 1997.
13. 大韓傳統韓醫學會 編著 : 芝山先生臨床學特講 III, 서울, 芝山出版社, 1997.
14. 大韓傳統韓醫學會 編著 : 芝山先生臨床學特講 IV, 서울, 芝山出版社, 1998.
15. 大韓傳統韓醫學會 編著 : 芝山先生臨床學特講 V, 서울, 芝山出版社, 1998.
16. 大韓傳統韓醫學會 編著 : 芝山先生臨床學特講 VI, 서울, 芝山出版社, 1998.
17. 大韓傳統韓醫學會 編著 : 芝山先生臨床學特講 VII, 서울, 芝山出版社, 1999.
18. 劉完素 : 傷寒三六書, 서울, 成輔社, 1976.
19. 成無己 : 傷寒明理論講解, 대전, 周珉出版社, 2000.
20. 汪詡庵 : 醫方集解, 서울, 成輔社, 1983.
21. 文濬典, 安圭錫, 崔昇勳 : 東醫病理學, 서울, 高文社, 1990.
22. 김영호 : 위장병 다스리기, 서울, 서림문화사, 1996
23. 胡秋禾 : 嘈雜辨治, 湖南中醫雜誌, Vol.19, No.6, 2003.
24. 김형규 : 內傷科의 形象醫學的 治療, 大韓傳統韓醫學會誌, Vol.1, No.6, 1999.